

스게 에도히간(울벚나무)

스게 지적(地籍)에 있는 '주오도(十王堂)' 앞 제방 경사면에 사당과 마을길을 감싸 듯 큰 가지를 드리우며 식생하고 있다.

높이 약 20m, 눈높이 둘레 3.9m, 가지길이 약 16m의 장미과 거목이다.

가운데 가지에 조금 말라버린 부분이 보여, 노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

나무의 자태가 잘 다듬어져 있고, 산골에 봄이 오면 다른 벚나무에 앞서, 연분홍빛 꽃이 달린 가지를 하늘 가득 뻗치는 개화 시기에는 실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.

이 지정목은 나무 아래에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'주오도(十王堂)'와 마두관음상(馬頭觀音像)을 비롯한 44기의 석상이 에도 시대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, 이 나무도 이에 버금가는 수백 년의 수령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